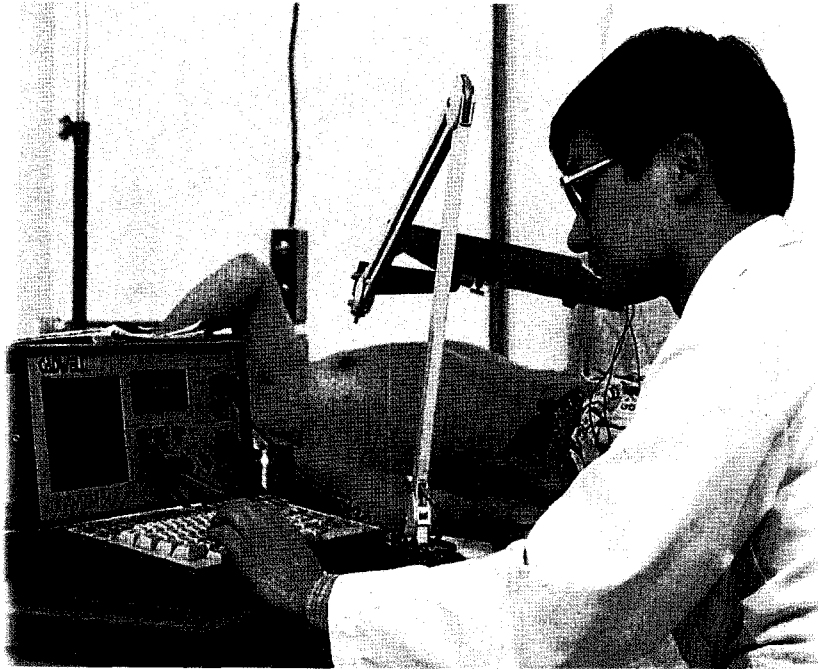


현 의료서비스 어디까지?



대장암을 장염·위궤양등으로 오진

정모 씨(여, 60세)는 상복부 통증과 설사 등의 증상으로 진료를 받았다. 담당의사는 장염·위궤양·십이지장궤양이라는 진단으로 8개월 동안 약물로 치료했으나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다. 정씨는 상급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았는데 대장암 진단이 나왔다. 서둘러 수술을 받았지만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3기 임이 밝혀졌다. 정씨는 담당의사에게 대장암 오진으로 인한 조기치료 기회상실을 이유로 배상을 요구했다. 담당의사는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해 분쟁이 발생했다.

처리결과는 어려웠다

정씨는 횡행결장암이었다. 이 암은 발생빈도가 극히 낮고 해부학적 위치도 위장의 후복벽에 위치해 위장 질병과의 감별에 다소 어려움은 있다. 하지만 장기간의 약물치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정확한 진단을 위해 시설이 갖춰진 상급병원으로 전원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의사는 문진 등의 진찰만으로 병세를 진단하고 치료했다.

상급 병원으로 전원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수술 및 검사에 소요된 비용 등으로 2백50만원에 합의됐다.

간암을 지방간·위염등으로 오진

김모 씨(여, 57세)는 복부통증·소화불량·답답함 등의 증상이 있어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 위염·지방간·소화성 궤양 등의 진단으로 약물치료를 받았지만 체중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등 증세가 더욱 악화됐다. 치료 시작 후 80일이 경과한 상태에서 상급병원으로 전원됐으나 이미 간암 말기의 상태였다. 김씨는 치료도 받아보지 못하고 2주만에 사망했고, 가족들은 오진으로 인해 수명단축 및 신변정리 기회상실을 이유로 배상을 요청했다.

처리결과는 이러했다

김씨는 5회 진료를 받았으나 최초 진료결과에 따라 계속 투약처방만 받았지 추가적인 정밀검사는 시행 받지 못했다. 담당의사는 김씨의 체중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증세가 현격히 악화되어서야 비로소 상급병원으로 전원했다. 진료시 상태변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밀검사를 하지 않고 최초 진단결과만을 근거로 투약처방만을 했다.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1천만원에 합의됐다.

소비자 주의 사항

우리 나라 사람들의 사망원인 중 암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20%에 이른다. 암 중에서 우리 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암은 위암이다. 암이 왜 생기는데 대해서는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타고난 유전적 요인에 환경적 요인이 작용해 암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암은 상당히 진행될 동안 증상이 없는 것이

특징이어서 이상 증상이 나타나 검진을 받으면 대부분 진행된 상태여서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정기적인 검진을 통한 조기진단에 의한 치료가 가장 바람직하다. 오진이 발생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비전문가에 의한 검사 ▲내용이 지나치게 혈액검사 위주였거나 중요 부위의 영상진단검사가 빠져 있는 경우 ▲대량 검진에서 오는 형식적인 검사 ▲저화질의 영상으로 인한 판독 불가를 꼽을 수 있다.

대개 검사라고 하면 혈액검사나 영상진단검사로 구분되는데 혈액검사는 기계에서 자동적으로 분석되므로 대량의 검사도 큰 오차 없이 가능하다. 그러나 대부분 암을 진단하는 진단방사선검사는 순전히 진단의사의 꼼꼼한 노력, 숙달된 진단지식과 예리한 판단력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진단 후 치료과정에서 증세가 호전되지 않거나 더 심해지면 의사에게 증상의 변화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사도 문진·시진·청진·촉진 등과 검사를 병행해 조기 진단이 되도록 노력하거나 시설이 갖추어진 상급병원으로 전원한다면 오진으로 인한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다. < >

사단법인 한국당뇨협회에서는 회원들의 시연을 기다립니다.

각 병원에서 겪은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함께 나누는 코너를 마련합니다. 물론 당뇨인에게 소개해 널리 알리고 싶은 병원이 있으시다면 추천도 가능합니다.

시연을 보내주실 때에는 자신의 실명과 전화번호, 주소를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한국당뇨협회 사무국 (02-2297-8540)

주소 : 서울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301-3 동신빌딩

5층 편집부